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유혹저항에 미치는 효과¹⁾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유혹에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접했을 때 사람들이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일화적 관찰을 토대로,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원천이 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 학업성적의 평균이 유사하도록 만든 10 명씩(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세 집단의 국민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담임선생님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지시를 하였다. 한 조건은 담임선생님이 아동에게 직접 숙제를 먼저 하라고 당부한 조건이었고, 다른 두 집단은 담임선생님이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하면서 어머니가 기뻐할 숙제를 먼저 하라고 당부한 조건과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하지 않은채 어머니가 기뻐할 숙제를 먼저 하라고 당부한 조건이었다. 다른 일을 해야하는 줄 알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동들이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보면서 지내는지 아니면 숙제를 하면서 보내는지를 측정한 결과, 어머니의 고생을 말해주면서 숙제먼저 하면 어머니가 기뻐한다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 대부분이 숙제를 한 반면에,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없이 숙제먼저 하면 어머니가 기뻐한다고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이나 숙제를 먼저하라고 담임선생님이 직접 당부한 조건의 아동들 대부분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된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원천의 하나임을 입증해 주었다.

핵심어 :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 · 자기통제 · 유혹저항(숙제먼저하기).

자기통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란 유혹이나 충동, 또는 고통으로 인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동(표적행동)의 실행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방해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표적행동을 실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통

제를 한다고 말한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참고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Kanfer & Goldfoot, 1966), 수행해야 할 과제보다 더 재미있는 유혹물을 물리치고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Patterson & Mischel, 1976), 또는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각성되었

1)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수행된 것임.

을 때 적절한 시기까지 그 만족을 지연하는 것(Mischel, 1974) 등은 행위자가 자신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자기통제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아동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더 큰 보상 때문에 즉각적 충동을 지연하고(Mischel, 1974; Mischel, Shoda, & Rodríguez, 1989),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기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Kanfer & Zich, 1974; Mischel & Patterson, 1976; Patterson & Mischel, 1976)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자기통제가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부모나 교사들의 훈육 과정에도 잘 드러나 있다. 아이들이 숙제나 공부하기를 싫어할 때에 어머니들은 “숙제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공부 잘 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 또는 “공부 잘 하면, 너 잘 되지 이 엄마가 잘 되냐?”는 등의 지시를 통해 아동들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행위자 자신에게 국한된 보상만으로는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체험하는 고통이 강하거나 충동이 강할 때 더욱 그렇다.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 큰 경우나 유혹이 강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쪽보다는 즉각적 고통을 회피하거나 즉각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고통에 대한 회피경향성이 유인자극에 대한 접근경향성보다 강하다는 사실(Brown, 1948; Dollard & Miller, 1950)이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독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만큼 충동이나 고통이 강력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득을 생각해서 자신을 규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

림픽의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가 그 좋은 예이다. 황선수는 훈련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참고 이겨냈다고 술회하고 있다(조선일보, 1992. 8. 11). 편식을 하는 아이나 특정 음식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잘 먹고 튼튼해지면 엄마가 무척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면 억지로라도 그 음식을 먹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타인에게 발생할 유익함을 생각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이러한 일상적 관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타인의 복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규제하는 측면이 간과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아동이 좋아하고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기통제를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통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유혹저항에 관한 연구는 그 상황을 살펴볼 때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한 유형은 개인이 금지된 행동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유혹에 대한 저항이고(Fry, 1975; Fry, 1977; Hartig & Kanfer, 1973; Kanfer & Zich, 1974; Sawin & Parke, 1979), 다른 한 유형은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서의 유혹에 대한 저항이다(Mischel & Patterson, 1976; Patterson & Mischel, 1975; Patterson & Mischel, 1976).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면, 금지된 행동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아이가 재미있는 T.V 만화 프로그램 때문에 공부를 방해받는 경우, 그 아

이에게 T.V 만화 프로그램(유혹물)을 보지 않게만 하는 것이 곧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아야함은 물론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바람직한 성과는 좋은 결과를 생성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통제의 한 형태로서의 유혹저항에 관심을 둔 본 연구에서는, 유혹저항 상황으로 유혹이 있을 때 이를 물리치고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바람직한 성과(또는 보상)를 내는 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잘 억제할수록(유혹억제책), 수행해야 할 과제에 잘 집중할수록(과제집중책) 또는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한 후에 발생할 성과 또는 보상을 생각할수록(보상지향책),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클 것이다. Mischel과 Patterson(Mischel & Patterson, 1976 ; Patterson & Mischel, 1976)은 어린 아동들에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구멍에 막대기를 꽂는 일을 시키면서, 유혹물로서 재미있는 장난감 광대를 등장시켜 아동들이 막대기를 꽂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에서 위의 세 가지 방안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들이 과제 수행에 보낸 시간과 과제량에서 유혹억제책이나 보상지향책은 과제집중책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chel과 Patterson(Mischel & Patterson, 1976 ; Patterson & Mischel, 1976)의 연구는 개인이 추구하는 보상이 일정한 경우에 유혹을 억제하는 것이 과제수행에 더 도움이 되는지, 수행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 특

히 유혹에 잘 저항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문화권 내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유혹에 직면하고 있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자주 떠올리면서 그것을 극복한 경우를 종종 본다(이어령의 26인, 1993). 고생하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강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조선일보, 1992. 1. 1.), 어려운 형편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보고하는 대학입학생들도 많다(조선일보, 1993. 1. 5.). 또한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을 보고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흔히 “우리 어머니의 고생에 비하면, 이것은 고생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일화들을 보면, 어머니의 고생이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게 해주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의 목표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에 의해 행동을 규제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라면(Harter, 1983 ; Kanfer & Zich, 1974 ; Karoly, 1993), 분명한 외부적인 보상이 없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자기통제의 원천을 찾는 일은 필요한 연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롭게하려는 것에는 이러한 성질이 내포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데(Baumeister, 1989, 1991 ; Klinger, 1977), 어머니는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애착대상으로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이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 Bowley, 1969 ; Erikson, 1963). 실제로 자연적 상황 하에서 관찰된 자료는 2세된 유아가 어머니의 불편에 자발적

인 관심을 보이며 그 불편을 덜어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lmers, 1992).

어머니에 대한 배려란 어머니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상태, 필요, 감정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어머니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어머니를 이롭게 하려는 것에는 어머니의 안녕이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또는 어머니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안녕이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린다든지, 맛있는 것을 드린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기뻐할 일을 수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는 어머니의 상태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미칠 것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인지적 측면, 이러한 인식을 통해 어머니를 이롭게 하도록 동기화되는 측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통해 개인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정영숙과 조용희, 1995).

어머니의 처지 중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는 자녀로 향한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사랑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다. 자녀로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자기희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은지(1991)는 자녀를 둔 30대, 40대, 50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40명씩(120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기초로 모성에 척도를 구성하였다. 자녀로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료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희생¹⁾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제1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자료에서

는 자녀에 대한 배려나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이 보다 나중 순위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어머니의 삶에서 자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도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국민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을 순위를 매겨 보고하게 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고생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그 다음으로 고생하는 사람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생활 속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아버지의 고생보다는 어머니의 고생이 더 잘 기억난다는 개인적 보고와 일치한다(이여령외 26인, 1993).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아동들은 아버지는 주로 돈버느라 힘든 일 하셔서 고생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어머니는 집안일(빨래와 청소)을 하시고, 먹여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시는 등 기르고 보살펴주시는 것과 자신들이 걱정을 끼쳐드려서 고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국민학교 5학년 정도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취학전 아동들은 어머니의 고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고 아플 때 돌보아 주고 예쁜 옷을 사준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였다(정영숙과 손자경, 1995; 정영숙과 김은경, 원고).

아동들이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어머니를 배려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아

1) 이은지는 어머니의 반응을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각 요인의 명칭을 정하였는데, 제 1 요인을 어머니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림, 즉 犧牲 또는 棄私 라고 명명하였다. '나는 내가 필요한 일보다 우리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먼저 해결한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의 발전이나 보람을 얻는 어떠한 활동도 포기할 수 있다' 등이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이다.

동이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어머니의 고생을 인식하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이러한 고생을 덜어주려는 동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하는 조건과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구분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렇듯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인식(예 : 어머니의 고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자신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통제의 원천을 찾아내려면 그 상황이 가급적 아동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운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학교 아동에게서 숙제하기란 아동이 거의 매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며 더 재미있는 일(예: 친구와 놀기, T.V 시청 등)이 있을 때에 쉽게 뒤로 미루어질 소지가 높은 일이다.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가 숙제부터 먼저 하기(이하 숙제 먼저 하기)를 바라고 원한다. 그리고 아동들은 자신은 하기 싫지만 자신이 숙제 먼저 하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동들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 방법은 자신은 하기 싫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보통 아동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자신의 어머니들은 하기를 바라는 일인 숙제 먼저 하기를 자기통제의 표적행동으로 삼았다. 그리고 숙제하기를 방해하는 유혹물로서 동화책과 만화책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유혹저항에 미치는 효과를, 숙제를 할 수도 있고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볼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아동이 유혹물(동화책과 만화책)을 물리치고 어머니가 기뻐할 숙제를 먼저 하

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숙제를 먼저하라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지시 중 어느 한 지시를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았다. 두 가지 지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 유도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 한 지시는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먼저하라는 당부를 할 때,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해 주는 조건이었고, 다른 한 지시는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해 주지 않는 조건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 효과에 관한 검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다른 지시는 어머니와 관련된 언급없이 담임선생님이 아동에게 숙제를 먼저 하라고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지시였다. 담임 선생님이 아동에게 숙제를 먼저 하라는 당부의 내용을 본 연구에 포함시킨 것은 숙제 먼저 하기는 담임 선생님이 국민학교 아동에게 실행하기를 요구하는(혹은 요구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숙제를 먼저 하라는 선생님의 직접적 요구가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숙제를 먼저 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통제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을 듣지 않았던 아동들보다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을 들었던 아동들이 어머니가 기뻐할 일을 더 잘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언이 가능하다.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하고, 숙제를 먼저 하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을 예상하도록 유도한 집단(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 유도 집단)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없이 숙제를 먼저 하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을 예상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아동들보다 유혹에 대한 저항(숙제를 먼저 함)을 더 잘 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부산 시내에 있는 한 국민학교의 5학년 한 학급의 학생 30명(남: 15명, 여: 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남, 여 학생들은 학년초에 실시한 기초학력고사 성적에 근거하여 남학생 중에서 석차 4등~18등, 여학생 중에서 4등~18등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친어머니와 함께 사는 학생들이었다.

절차

피험자에 대한 실험조건 할당과정. 어느 피험자가 어느 처치를 어떤 순서로 받을 것인지는 실험 전에 결정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처치 조건을 할당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성적 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성적 순위의 평균이 동일하도록 남, 여별로 각각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세 집단을 세 가지 처치 조건 중의 어느 한 조건에 각각 할당하였다. 각 집단을 어느 한 처치 조건에 할당한 다음 각 조(모두 10조임)에서 어느 처치를 먼저 실시할 것인지를 1, 2, 3 숫자를 적은 종이를 섞은 후에 무선적으로 뽑아서 처치 실시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전에 순서가 정해진 피험자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숙제내어주기.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숙제로 전체 학생들에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인쇄된 글과 원고지를 나눠주면서 그 내용을 원고지 쓰는 법에 맞게 원고지에 적어 오도록 하였다. 원고지 5매에 쓸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담임 선생님의 도장이 찍힌 원고지 5매를 아동에게 나

눠준 이유는 아동에게 숙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에 언제라도 숙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원고지와 베껴 쓸 내용을 학급의 전체 학생들에게 나눠 준 후에, 담임 선생님은 아동들의 학교 도서관 정리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과 학급의 아동들이 도서관 정리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 주면서 그 학생들이 오늘 도서관 정리를 도와야 할 학생들이라고 알려 주었다.

대기실에서의 지시. 이름이 불린 학생들이 대기실에 모인 다음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도서관 정리를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일이 있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하면 정리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다음, 한 사람씩 주의사항을 듣게 한 후 도서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담임 선생님은 아동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실험 처치가 되는 지시를 가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 시작 전에 무선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아동의 담임 선생님이 아동에게 실험 처치를 가하였다. 담임 선생님은 실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아동을 한 명씩 불러내어 도서실로 가는 복도에서 아동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음의 세 가지 지시 중의 어느 한 지시를 주었다. 숙제를 먼저 하라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당부한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야, 오늘 숙제가 무엇이지? 글을 원고지에 옮겨 적는 것이지!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지. 그래서 놀고 난 뒤에 숙제를 잘 하지. 오늘은 숙제를 제일 먼저 해 놓고 다른 일을

해라. 알겠지?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도서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해라.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담임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야, 오늘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한 가지 꼭 해라. ○○어머니는 ○○가 숙제를 먼저 해 놓고 다른 일을 하면 아주 기뻐하신단다. 어머니는 ○○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숙제를 제일 먼저 해 놓고 다른 일을 해라.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도서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한 위의 지시 내용 중에서 “어머니는 ○○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라는 부분만 제외시킨 동일한 지시를 주었다.

종속변인의 측정. 아동이 도서관으로 들어오면 실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서와. 여기 앉아라. 너희 학교 도서 정리 준비를 하느라 지금 선생님이 아주 바쁘니, 조금 기다려줄래. 아마 20~30분 정도면 지금 하는 일은 끝날 것 같다. 너 앉아있는 책상 위에 보면 동화책도 있고 만화동산도 있느니 읽고 싶으면 아무거나 읽고 있거라. 혹시 숙제있니? 숙제하고 싶으면 숙제해도 좋아.” 이 말을 한 후에 실험자는 피험자가 있는 방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도서관으로 갔다.

아동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는 신간 동화책 2권(도깨비 수색대, 배꼽장군)과 해가 지난 만화책 2

권이 놓여 있었다. 아동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관찰자는 아동의 등 쪽 사선 방향에서 실험자가 나간 후에 아동이 언제 숙제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숙제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실험자는 도서관을 나간 후 7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동을 옆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서, 실험 보조자로 하여금 아동에게 도서정리를 시켰다.

실험자와 관찰자는 아동이 어떤 종류의 지시를 받았는지 몰랐다. 피험자가 어느 조건에 속한 학생인지는 실험을 끝마친 후에 담임 선생님이 처치를 가한 일련의 순서와 관찰된 아동의 일련 순서를 비교하여 실험 조건을 확인하였다.

결 과

세 가지 지시 조건에 각각 남·여 5명씩의 자료가 있었는데, 성의 주효과와 성과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므로 남·여의 자료를 합쳐서 자료 분석을 하였다. 표 1에는 각 조건 별로 도서관에서 7분 대기하는 동안 짧은 시간이라도 숙제를 한 사람과 전혀 숙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숙제를 한 전체 13명의 아동 중 3명(각 조건당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7분 동안 계속해서 숙제를 하였다.

표 1을 보면,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해 주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숙제를 먼저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아동은 대부분이 숙제를 먼저하였다(10명 중 8명). 그러나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직접 숙제를 먼저하라는 당부를 받았던 아동들과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없이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숙제먼저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아동들은 대부분이 숙제를 먼저하지 않았다(10명 중 각각 8명과 7명이 숙제하지 않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되었다($\chi^2 = 6.90, p < .05$). 이 결과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

를 중진시키는 원천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표 1. 세가지 지시 조건별 숙제먼저 한 학생의 수와 숙제먼저 안한 학생의 수

	숙제먼저 하라고 담임선생님이 당부한 조건	숙제먼저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신다고 담임선생님이 알려준 조건	
	(n=10)	어머니고생 무언급 어머니고생 언급 (n=10)	(n=10)
숙제 먼저 한 학생의 수	2	3	8
숙제 먼저 안한 학생의 수	8	7	2

논 의

숙제를 할 수도 있고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볼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황(유혹 상황)에서, 아동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유혹을 저항하게 하는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지해주는 결과를 얻어냈다. 즉, '숙제먼저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려준 조건의 아동들이 다른 두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수가 숙제를 먼저 하였다. 다른 두 조건으로는 '숙제먼저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려준 조건과 '담임선생님이 숙제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하라'고 당부한 조건이었다.

실험실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동들은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오늘은 숙제를 먼저하고 난 후에 다른 일을 하라는 당부를 받았고,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그러나 이 조건에 속한 대부분의 아동들이 숙제를 먼저 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숙제먼저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집단의 아동들 대부분도 숙제를 하기보다는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보면서 대기 시간을 보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상황이 아동들로 하여금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만든 적절한 유혹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보아도 좋고 숙제를 해도 좋다고 했으므로 숙제를 꼭 해야한다는 구속력이 약했을 것이고, 숙제란 평소에 내일 학교 올 때까지만 해 오면 되는 것이지 꼭 당장에 숙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혼자 있다는 것 등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숙제를 하기보다는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읽게끔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를 보면, 단순히 숙제먼저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준다는 지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아동들이 숙제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해주었을 때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고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일으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충분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해주었을 때에 유혹에 대한 저항 효과가 나타난 것이 어머니의 고생이라는 단어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실제적인 고생과 사랑이 있어야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고생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아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지시가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동기화시키려면 아동의 어머니가 실제로 아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자녀에게 누군가가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

한 배려를 하게 되리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바람직한 행동인 숙제 먼저 하기보다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읽는 상황에서 '숙제 먼저하는 것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지시를 들었던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혹물에 저항할 수 있게 된 결과를 놓고,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내부로부터 동기화된 성질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인식은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향한 자기희생(자녀로 향한 어머니의 이타성)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자신으로 향한 어머니의 이타성을 인식한 아동이라면 어머니를 위하려는 마음이 개인의 내부에서 동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배려는 아동 자신으로 향한 어머니의 이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의 복지에 관심을 둔 아동의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동기화된 내재적인 성질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맹자의 주장(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孟子, 盡心上篇 45)도 사람들에게서 친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훨씬 더 자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고통을 체험할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생길 득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결과(정영숙과 조용희, 1995)도 이런 가능성을 지지해 준다.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내부로부터 동기화된 성질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Baumeister(1989, 1991)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Baumeister(1989, 1991)는 인간을 당장의 충동이나 유혹 또는 당장의 불편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삶의 의미(meanings of life)'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Baumeister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을 지니기를 바라며(목적지향성),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정당한 것

으로 느끼려 하며(가치지향성), 자신이 외부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며(자기효능감), 자신이 보다 가치있는 존재(자기존중감)가 되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충동이나 불편을 참아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는 Baumeister가 언급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가치있는 행위이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따라서 자기존중감도 증진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유도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는 어머니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통제를 하는 연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고생이외의 어머니의 또 다른 처지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개념화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다면, 아동으로 하여금 아동이 좋아하고 친밀한 타인을 배려하게 만듦으로써(예: 유치원가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유치원가는 것이 얼마나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알려줌)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고 문 헌

- 이여령외 26인(1993). 어머니 나의 어머니. 서울 : 자유문학사.
- 이은지(1991). 모성에 척도의 구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영숙, 김은경(원고). 보상수혜자와 과제곤란도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자기통제 효과.
- 정영숙, 손자경(1995).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 아동의 욕구만족 지연 효과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8, 136-147.
- 정영숙, 조용희(1995). 보상수혜자가 어머니 내인 경우와 자기인 경우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 : 과제중요도 지각, 정서 및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4, 217-23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Baumeister, R. F.(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1989). The problem of life's meaning. In D. M. Buss, & N. Cantor (Eds.), *Personality Psychology*(pp. 138-148). New York : Springer-Verlag.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rown, J. S.(1948). Gradients of approach and avoidance responses and their relation to level of motivation.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41, 450-465.
- Dollard, J., & Miller, N. E.(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 McGraw-Hill.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 Norton.
- Fry, P. S.(1975). Affect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66-472.
- Fry, P. S.(1977). Success, Failure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3, 519-520.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 social development*(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275-285.
- Hatig, M., & Kanfer, F. H.(1973). The role of verbal self-instructions i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59-267.
- Kanfer, F. H., & Goldfoot, D. A.(1966). Self-control and tolerance of noxious stim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18, 79-85.
- Kanfer, F. H., & Zich, J.(1974). Self-control training : The effects of external control o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08-115.
- Karoly, P.(1993). Mechanism of self-regulation : A systems 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23-52.
- Klinger, E.(1977). *Meaning and void*.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ischel, W.(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B. 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Mischel, W., & Patterson, C. J.(1976). Substantive and structural elements of effective plans for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42-950.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Patterson, C. J., & Mischel, W.(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09-217.
- Patterson, C. J., & Mischel, W.(1975). Plans to resist to dist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9-378.

Sawin, D. B., & Parke, R. D.(1979). Development of self-verbalized control of resistance to dev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0-127.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Effects of Concern for Mother Mediated by Child's Awareness of Mother's Labour on Resistance to Temptation

Chong, Young - Sook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cern for mother as a source of enhancing self-control in the tempting situation. 30 fifth grade children were individually told one of the three instructions about priority of doing homework by his/her teacher : 1) a teacher merely told children to do homework before anything else 2) a teacher told children to do homework before anything else to please their mothers without mentioning mother's labour, and 3) a teacher told children to do homework before anything else to please their mothers along with mentioning mother's labour. Whether subjects in a room with tempting things did homework in 7-minutes period during which he/she can act freely was observed by an experimenter who was blind to the subject's condition. Most of children who were told of their mothers' labour in addition to the priority of doing homework did their homework, but most of the children in the other two conditions did not do their homework. From the result, we concluded that concern for mother mediated by child's awareness of mother's labour has powerful effects on resistance to temptation.

Key Words : self-control · concern for mother · awareness of mother' labour ·
resistance to temptation